

## 스포츠에서의 덕 윤리 적용 가능성 연구: A. MacIntyre 덕 윤리에서 ‘실천’ 개념을 중심으로

이지항 (성균관대학교 교수)

### I. 들어가는 말

1. 스포츠에 대한 몇 가지 시선
2. 스포츠에서 덕 윤리의 필요성

### II. 현대 사회에서 덕 윤리 부활의 의미

1. 행위 중심에서 행위자 중심으로의 이행
2. 실천, 내러티브의 통일, 전통으로서의 덕

### III. 맥킨타이어 덕 윤리로 바라본 스포츠

1. 덕의 일차적 요소인 ‘실천’
2. 덕의 요소인 ‘실천’으로서의 스포츠
3. ‘실천’ 내재적 가치를 보완하는 내러티브와 전통

### IV. 맺는 말 : ‘좋은 삶’의 원형 회복을 위한 스포츠

---

• ABSTRACT •

---

A Research on the Applicability of Virtue Ethics to Sports  
- Focused on the concept of 'practice' in A. MacIntyre's virtue ethics

Lee, Ji-Hang

This study attempts to approach sports from a ethical viewpoint, in keeping with the current trend of academic convergence. Preceding researches on the ethical issues of sports typically brought up the several critical issues like biased judgment, drug use, beating and gender discrimination, and tried suggest ethical standards in order to overcome such problems. However, it is often unclear to determine either 'right' or 'wrong' without disputes. In particular, in the contemporary society, too much emphasis on the outcome of sports and disregards of the essence in sports, inevitably, results in ethical disputes among parties. Such situations, of course, are not limited to sports. Facing such incommensurable ethical judgements, A. MacIntyre proposes 'virtue ethics' as an alternative ethics applicable to sports. Based on MacIntyre's virtue ethics, sport science researchers like P. Arnold has also proposes a new sports ethics. When compared to the 'act-centered' ethics, Virtue ethics are 'agent-oriented' approach of ethics in an effort to settle the ethical conflicts of the contemporary society. First, the necessity for applying MacIntyre's virtue ethics to sports was introduced by recognizing current problems. Then, discussions about the necessity of recovering the essence of sports followed. In particular, through the reinterpretation of 'sports' based on the concept of 'practice' proposed by MacIntyre in his definition of virtue, an effort was made to diagnose the problems of current sports and suggest a possible solutions.

Thus, this paper concentrates mainly on re-establishment of sport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virtue ethics and the concept of virtue, and tries to avoid the conventional introduction and interpretation of sports ethics as an applied ethics.

The overall discussion puts significant emphasis on the convergence of sports and virtue ethics to evade the negative viewpoints toward sports, and to reestablish the original form of "healthy life," the essence of sports.

**Key words:** sports, virtue, A. MacIntyre, virtue ethics, practice, agent-centered ethics, physical education

---

## I. 들어가는 말

### 1. 스포츠에 대한 몇 가지 시선

지난해 말, 온라인 스포츠 전문 사이트 스포토픽에서 2014년도에 화제가 되었던 스포츠 이슈와 인물 10인을 정리했다. 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피겨 경기에서 발생한 쇼트니코바와 김연아 선수의 판정 논란부터, 만년 꼴찌 춘천 우리은행의 여자프로농구 2 시즌 연속 우승, 골프 선수 미셸 위의 78전 79기, 롯데 자이언트 구단의 선수 CCTV 사찰 등 경중의 논의는 있지만, 대부분의 굵직한 사건들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다.<sup>1)</sup>

올해에 들어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박태환 선수의 도핑 파문과 교육부의 초·중·고 체육 예산 삭감도 스포츠를 넘어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sup>2)</sup> 사실 스포츠계에서는 이러한 과도한 상업주의, 운동선수의 기계화, 승부 조작, 도핑 등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 인식과 해결에 대한 노력은 여론 잠재우기 식으로 때우는 정도의 미비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이번 박태환 선수의 사건을 보면, 이런 주먹구구식의 해결과

1) <http://www.sportopic.com/1858> 2014년 12월 30일 “2014 우리가 기억해야 할 스포츠 이슈와 사람들 Top 10” 참조

2) 체육(physical education)과 스포츠(sport)는 영미권을 비롯한 학계에서는 구분되어져 사용된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그 경계가 모호하게 지칭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체육이란 용어는 교육을 목적으로 할 때 사용되며, 스포츠는 교육을 포함한, 제도적으로 마련된 규칙에 의한 경쟁적 신체 활동을 지칭하는 상황에서 사용한다. 또한 스포츠라는 단어는 불가산명사인 sports와 가산명사인 sport 두 가지로 사용되는데, sport라는 단어는 disport에서 파생된 말로 ‘즐겁게 하다, 기분 전환’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다. sports는 19세기경부터 sport의 기술과 규칙이 개선되면서 전문화와 국제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새롭게 쓰이게 되었다. 엄밀하게 말하면 sport는 sports를 포함하고 있는 셈이다. 본 논문에서는 체육은 교육의 영역에 한정되어 사용하고, 현대적 의미로 체육을 포함한 복합적인 개념으로 불가산명사로서의 영역을 스포츠라고 사용했다.

답 없는 찬반 양론만이 무성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한체육회는 부랴 부랴 국가대표 선수들을 대상으로 도핑에 관련된 교육을 했다고 하지만, 30여분 정도로 진행된 교육을 통해 선수들이 도핑에 관한 전문 정보를 모두 이해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약의 성분을 선수가 일일이 도핑 방지사이트에서 검색을 하고, 해외에서 처방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한다. 대한체육회는 일 년에 서너 차례 선수들을 대상으로 도핑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종목별 세분화 교육도 진행하지만, 실효성 여부는 단언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선수들은 다양한 이유로 금지 약물에 유혹을 느끼게 된다. 경기력 향상을 위해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은 모든 선수들의 꿈이다. 결국 근육을 발달시켜주는 효과도 있고, 손상된 근육을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약물을 외면하기는 쉽지 않다.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혈압과 맥박을 올려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혈액 속 적혈구의 수를 증가시켜 근육세포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해주는 방법도 외면하기 어렵다. 선수들의 몸에서 수분을 배출시켜 체중을 줄이거나 염증이나 부상에 의한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도 절박한 문제다.

사실 선수들이 이러한 유혹들을 외면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스포츠계에서는 제도적으로 철저히 도핑 차단 장치들을 쉬지 않고 개발하고 운영한다. 치밀한 검사를 통해 지나칠 정도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도 사실 선수를 보호하고 스포츠의 본질을 지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도핑 검사는 인체의 생리작용과 화학적 분석에 대한 첨단 과학과 기술이 총동원된다. 그러나 불법 약물 복용을 위한 도핑 방법 역시 점점 진화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물의를 빚은 바이오제네시스 사태<sup>3)</sup>의 경우나 적발을

3) 바이오제네시스 스캔들을 예로 들어보자. 바이오제네시스 스캔들은 메이저리그 선수 일부가 노화방지 클리닉으로 위장한 바이오제네시스라는 업체로부터 약물을 제공받은 사건이다. 회사의 설립자인 앤서니 보시는 메이저리그 선수들에게 성장 호르몬을 직접

막기 위해 소량의 다양한 약물을 함께 투여하는 등, 도핑 전문가라 불리는 ‘약물 코디네이터’<sup>4)</sup> 들의 활약은 다양한 방법으로 은밀하게 선수들을 유혹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는 스포츠가 존재 하는 한, 끊임없이 도핑과 반도핑의 팽팽게임처럼 선수들의 목숨을 담보로 지속되어야 하는 굴레일까? 사실 지금까지 스포츠계에서는 윤리적 이슈들이 발생하는 경우 저마다 ‘옳음’과 ‘그름’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촉각을 세워왔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상반된 도덕적 판단들이 상대적인 잣대로 갈등을 겪을 때, ‘옳음’과 ‘그름’에 대한 판단은 단지 잘잘못을 따지는 논쟁에 그치고 말았다.

박태환 선수의 경우를 보더라도,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기에 선부르게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선수와 병원의 책임성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김지현 선수가 부상 치료가 아닌 건강 목적으로 사용한 약물이 도핑 문제로 이어졌고, 선수 자격정지 2년을 받았던 사례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평가의 잣대는 일관성을 잃은 지 오래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도핑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제 스포츠계에 만연한 윤리적 문제들에 대하여 단순히 옳고 그름을 판별하고 잘잘못을 따지며 책임을 묻는 데 그치는 것은, 해결점이 될 수 없다는 문제제기에서 시작되었다. “선수들이 목숨을 걸고 약물을 먹어가면서 경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눈앞에 숫자 한 자리 때문에 목숨을 걸고 취한 선택 이면에는 이미 운동하는 기제로 변해 버린 선수들이 왜 운동을 하고,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결정할 기회조차 허락받지 못했음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모두 일등만을 기억하고 금메달만 인정하는데 ‘왜’

주사했다. 현재 성장호르몬은 세계반 도핑기구(WADA)에서 2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 금지약물이며, 테스토스테론과 유사한 동화작용 효과가 있다. 당시에는 도핑 테스트에서 성장호르몬을 검출하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사건이었다.

4) <http://www.dongascience.com/news/view/6244> 『과학 동아』 황세진, 고개 숙인 마린보이, 스테로이드의 유혹, 2015년 3월 1일

와 ‘어떻게’는 경쟁에서 도태되는 한심한 고민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서로 이기기 위해 전력 질주를 하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답은 ‘얼마나’가 아니라 ‘왜’와 ‘어떻게’를 묻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즉 스포츠에서 벌어지는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내세우며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넘어 스포츠가 존재하는 이유와 스포츠맨의 정체성(을)을 다시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작업 속에서 스포츠 현장에 만연한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할 단초를 찾게 될 것이다.

## 2. 스포츠에서 덕 윤리의 필요성

자본주의 사회 구조에서 좀 더 좋은 삶,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스포츠를 선택했다. 그리고 스포츠는 일면 사람들의 그런 욕구를 만족시켜 왔다. 산업 사회를 거치면서 비인간화되는 상황 속에서 놀이의 역할과 상호 활동의 역할을 통해 육체와 관계의 의미를 이어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기능은 그다지 오래 가지 못했다. 스포츠 또한 자본주의, 산업화, 상업주의 등을 만나면서, 스포츠가 본래 가지고 있던 장점인 규칙을 지키며 정정당당한 경쟁을 추구하는 정신은 잃어버리고 단순한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풍조가 팽배해진 것이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자본주의와 스포츠를 떼어 놓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스포츠의 상업화가 스포츠의 본질을 망각하게 하고 결국 윤리적인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원인임을 부인할 수도 없다. 상업주의가 단지

5) 스포츠는 크게 신체 활동이 중심이 되거나, 그것을 넘어서는 놀이, 좁게는 신체 활동이 중심이 되는 제도화된 경쟁적 활동으로 정의되곤 한다. 이러한 정의 속에는 ‘스포츠와 놀이’의 관계, ‘경쟁적 활동’, ‘신체 활동의 주체’ 등의 주체들이 담겨 있다. 즉, 스포츠는 놀이적 특징을 갖고 규칙에 의해 중재되는 경쟁적 활동으로 체력 뿐 아니라 인간 몸과 마음, 정서가 총체적으로 함께 동반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에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정당화하기도 한다. 세상이 모든 사회 활동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이를 성취의 잣대로 삼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지는 것이다. 결국 현대 스포츠의 상업화는 스포츠를 재화 충족의 수단으로 전락시켜서 스포츠 행위자를 비윤리적인 주체로 만들어 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스포츠는 본질과 긍정적 가치를 회복할 수 있을까? 본 논문은 현대 스포츠가 자본을 따라 가느라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 나서면서, 그 길에서 스포츠가 지켜 온 인간의 문화로서의 선(善)한 가치를 회복시켜 보고자 한다.

스포츠가 지켜온 가치 중에, 가장 보편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페어플레이’ 그리고 ‘스포츠맨십’이다. 시행의 강도와 빈도가 저조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정규 교과목으로 체육 교육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면, 스포츠를 통해 공정성이라는 윤리적 개념을 익히고 정당한 경쟁을 배우게 된다는 ‘인성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자각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과학과 기술주의를 통한 이원론이 팽배해 지고 육체와 정신, 이성과 감정이 분리되면서 스포츠 또한 육체만이 강요된 정신을 위한 도구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

결국 스포츠는 내면적으로도 외면적으로도 모두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이론만 남은 스포츠맨십은 경쟁의 영역에서 자꾸만 뒤쳐지게 되었다. 어떻게 하든 이겨야 하고, 이긴 승자만이 인정을 받는 스포츠의 세계 속에서, ‘페어’라는 가치는 ‘경쟁’과 함께 사라지고 결국 승자만이 ‘페어’하게 대접받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현장에서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의견이 대립되지만 결국 그 의견들은 ‘승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달라지곤 한다.

서로 다른 윤리적 판단들이 갈등을 할 때, 그것을 조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물며 그 잣대가 경제 논리에 따라 우왕좌왕한다면 그 판단



은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 현대 사회의 이러한 도덕적 아노미의 상황을 맥킨타이어(A. MacIntyre)는 ‘통약불가능한 상태(incommensurability)’<sup>6)</sup> 라고 불렀다. 그에 따르면 지금 우리 스포츠의 현장은 서로 서로 자신의 판단만이 옳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정작 스포츠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맥킨타이어는 이렇게 도덕적 공황의 상태가 야기된 이유로 정의주의(emotivism)<sup>7)</sup>를 지목한다. 그는 현대 사회가 다양한 도덕적 가치를 인정하는 윤리적 상대주의 때문에 곤혹스러운 상황이며, 그래서 서로 다른 도덕적 주장들이 저마다 옳다는 통약불가능의 사회가 되었다고 한다. 또한 그는 이런 상황에서 제기되는 도덕적 주장들이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개인적인 자의성을 근거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sup>8)</sup> 이런 상황에서의 도덕적 논쟁 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당사자가 가질 수 없을 경우, 자신의 논의를 고수할 수 있는 근거는 객관적이기 보다는 주관적인 성격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현대 도덕의 또 다른 특징은 주관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그는 이러한 원인이 근대 초기 계몽주의 도덕 기획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한다.

맥킨타이어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18세기로 거슬러 가서 당시 흄과 디드로, 칸트, 키에르케고르에 주목한다. 맥킨타이어가 이들의 도덕 이론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들의 논의가 서로 상이하지만, 근본적으로 계몽주의 도덕 철학의 핵심적인 특징을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 특징을 밝힘으로써 근대 계몽주의 도덕철학이 시도했던 작업이 무엇을 의미했으며, 그것이 현대 도덕의 모습에 어떤 영향을 주었

6) A. MacIntyre, *After Virtue*(Indiana: Notre Dame University Press, 1984), the second edition, p. 8.

7) *ibid.*, ch. 2~3. pp. 5-21 참조

8) *ibid.*, p. 8

는지 알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들 사이에 모종의 공통적인 도덕적 신념이 있다고 한다. 맥킨타이어가 주목한 그 공통점은 이들 모두 인간 삶에 대한 목적론적 체계를 거부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왜 근대 이후의 도덕철학은 이전 도덕의 목적론적 체계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맥킨타이어는 그 이유를 근대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이성 개념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목적론적 체계가 존재하고 있었던 시기에서의 이성은 인간의 참된 목적에 대한 해명을 제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근대 이후, 이성은 단지 현존하는 사실적 실재와 논리의 차원에 국한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것은 자연과학의 영향으로 근대 이전의 종교적이고 신적인 모호성의 폐단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타난 이성은 결국 목적에 대해서는 어떤 이해도 제공하지 않고 단지 수단적이고 사실적인 영역에 관해서만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인간 삶의 목적은 우리의 인식의 차원에서 해명될 수 없는 것으로 취급받게 되었고, 결국 도덕 논의에서도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는 것이다. 맥킨타이어는 이러한 근대 계몽주의 도덕의 실패는 결과적으로 주관적 도덕을 옹호하는 정의주의로 나타나며, 이로 인해 현대 도덕 질서가 붕괴된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맥킨타이어의 이러한 정의주의에 대한 비판의 맥락은 현대 우리가 스포츠 문제들을 목도하고 다루는 측면과 닮아 있다. 모든 가

9) 여기에는 사실과 가치가 구분되어야 하는 전제가 필요하다. 윤리학에서 존재(사실)로부터 당위(가치)의 도출 가능성에 관한 문제는 최초로 흄에게서 지적되었다. 흄은 존재로부터 당위의 도출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도덕 철학자들이 존재로부터 당위를 끌어내는데 있어서 감정의 측면을 무시하였다는 것과 존재로부터 당위를 끌어올 수 없다는 존재-당위 이원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에서는 무어가 사실 명제들 만으로부터 가치명제가 논리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는 이 문제를 '자연주의적 오류(naturalistic fallacy)'라고 정의했다.

치에 대한 평가는 개개인의 감정이나 태도에 불과하고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결여된 것이다. 그래서 도덕적 이슈의 당사자는 언제나 목적성을 잃어버린 수단이 되어 버리고 만다. 그 결과 스포츠에 종사하는 스포츠맨들은 스스로 서로를 수단으로 바라보게 되고, 규칙 위반, 처벌, 도핑 등의 문제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맥킨타이어는 이 지점에서 서로가 서로를 수단으로 여기면서, 감정의 소모만을 일삼은 윤리적 판단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목적을 되찾는 인간상의 구현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 목적을 지닌 도덕적 주체로서의 인간을 회복할 때, 앞서 논의한 도핑 파문과 같은 사례는 다음과 같이 논의될 수 있다. 즉 “왜 스포츠에서 약물 투여는 금지되어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 목적론적 입장의 답변은 “스포츠 경기에 임하는 선수 자신 스스로 규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약물의 유혹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되면 된다는 것이다. 즉, 약물 투여에 대한 ‘행위’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그 행위의 목적이 되는 ‘행위자’로 관심을 돌리자는 말이다.

이러한 맥킨타이어의 관심은 현대 사회의 도덕적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목적론적인 윤리학이 다시 복원될 수 있는지에 집중된다. 여기서 맥킨타이어가 주목한 개념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중요한 핵심이었던 ‘덕’ 개념이다. 우리는 여기서 맥킨타이어가 현대 사회의 도덕적 아노미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덕’ 개념에 정초한 윤리에 대해 살펴보면, 이 윤리를 스포츠의 영역에 접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 볼 것이다.

## II. 현대 사회에서 덕 윤리 부활의 의미

### 1. 행위 중심에서 행위자 중심으로의 이행

서양철학에서 덕에 대한 담론은 아리스토텔레스 이전 프로타고라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오르페우스교의 영향으로 금욕이라는 덕을 통해 영혼을 정화하려고 했으며,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 유전설’을 통해 모든 것은 변화하고, 인식할 수 있는 로고스를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덕’이라는 말을 남겼다. 덕에 대한 이러한 전초단계를 거치면서 등장한 소크라테스는 본격적으로 덕의 문제를 다루었다. 소크라테스 이전의 자연철학자들이 만물의 원리인 아르케에 대한 탐구를 통해 자연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일에 치중한 반면, 소크라테스는 주요 관심사를 도덕의 문제에 두었다. 그는 보편적인 것에 대한 인식은 개별적인 것에 대한 판단의 예비적 과정이라고 하면서, 언제나 바른 행위나 경건한 행위를 통해 덕의 본질을 정의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지도하려고 했다.<sup>10)</sup>

스승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은 플라톤이었다. 그는 정치학, 논리학, 인식론, 미학, 형이상학 등의 문제를 탐구했지만 본질적으로 고민했던 것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플라톤이 사람다운 훌륭한 삶을 다루는데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의 좋은 상태는 그 사물의 가장 성숙한 모습, 즉 가장 완전하게 발전된 모습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상태는 바로 ‘아레테 arete’ 즉, 덕이다. 여기서 플라톤이 말한 덕은 탁월성의 성취, 즉 인간의 온갖 능력이 이상적으로 발휘되어 완성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sup>11)</sup>

고대 그리스의 덕 담론은,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러

10) 이지성, 『덕 윤리 내에서의 내러티브 연구』 숭실대학교 철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3, pp. 11~12

11) *ibid.* p. 12

체계적인 형태를 갖게 된다. 하지만 근대 이후 덕에 대한 논의는 니체가 신의 죽음을 알리고, 포스트모더니즘의 물결이 ‘주체의 죽음’을 알리는 분위기에 밀려 버리고 말았다.

그러던 중 1970년대 맥킨타이어를 중심으로 한 영미 윤리학자들에게서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의 덕 이론에 대한 논의가 부활되었다. 그들은 ‘시대와 이데올로기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도덕은 존재하는가?’ 특히,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는 우리 시대에 모든 사람이 수긍할 만한 도덕의 원리와 체계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했다. 그리고 바로 현대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윤리적 삶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의무의 개념보다는 행위자를 중심으로 하는 ‘덕’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문제는 앤스콤(Elizabeth Anscomb)의 1958년 논문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현대 윤리학의 난점을 두 가지로 지적하는데 첫째는 현대 윤리학이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가 아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한다”는 ‘당위’로 대답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도덕성은 마치 법처럼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것이 앤스콤의 지적이다<sup>12)</sup>.

## 2. 실천, 내러티브의 통일, 전통으로서의 덕

맥킨타이어의 관심은 현대 사회의 도덕적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목적론적인 윤리학이 다시 복원될 수 있는 가였다. 그 과정에 그가 주목한 개념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중요한 핵심이었던 ‘덕’ 이었다. 맥킨타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목적론을 복원하기

12) G. E. M. Anscomb, “modern moral philosophy” *Philosophy* 33, pp. 1-19

위해 그의 덕과 선에 대한 개념을 우선적으로 살피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윤리학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재구성 하고 있다.<sup>13)</sup> 그는 호머시대에서 근대까지의 덕 개념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목록에서 악덕으로 간주되던 겸손을 기독교에서는 하나의 덕으로 본다. 맥킨타이어는 이러한 이질적이고 대립적인 성격 속에서 덕에 대한 하나의 통일적인 핵심개념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한다. 이에 대해 그는 덕의 개념이 심각하게 이질화된 근본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힌다. 우선 덕의 개념이 이질화된 원인은 바로 덕의 존재에 선행하는 선에 대한 이질성 때문이다. 즉 덕이 시대마다 상이하게 된 원인은 인간 삶의 선에 대한 이해가 달랐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선에 대한 이질성을 기초로 해서 맥킨타이어는 “과연 인간 삶 속에 역사적으로 선이 제약된다면, 그 선의 역사성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라는 질문에 다다른다.

맥킨타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선이란 모든 것이 목표로 하는 것”이라는 말에 동의한다. 그는 “사람들마다 추구하는 것이 다를 수 있는데, 이 경우에 각자가 추구하는 것들 모두가 선이 될 수는 없으며, 선이 될 수 있는 것은 단지 그런 것들 중에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에 국한된다”<sup>14)</sup>고 주장한다. 이렇게 볼 때 선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공유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선이 공유적인 것이라면 어떤 것이 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게 하는 공유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기준은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세워져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맥킨타이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덕과 선이

13) A. MacIntyre, *After Virtue* op.cit., ch. 12 참조

14) *ibid.*, p. 58

갖는 역사성이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비역사적인 관점으로 덕과 선을 규정하려고 한다면, 윤리학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덕과 선의 상이한 측면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맥킨타이어는 덕과 선에 대한 역사적 측면을 견지하면서, 이들 개념이 갖는 보편적인 특성을 발견해야 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그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적 장치들을 마련한다. 그는 덕의 보편성을 확보시키기 위해 3가지 요소를 제시한다. 그것은 실천(practice), 인간 삶의 내러티브적인 통일성(the narrative unity of a human life) 그리고 전통(tradition)이다. 즉 덕이란 실천 속에 드러나는 선을 만들게 위해 필요한 것이고 인간 삶의 내러티브들에 통일성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며 지속적인 사회 전통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 이 개념이 스포츠와 연계되어 논의될 때, 스포츠의 내재적인 선, 즉 역사성을 담보하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스포츠의 본질과 스포츠맨십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이중에서 맥킨타이어가 가정 먼저 지정한 ‘실천’ 개념을 스포츠와 연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sup>15)</sup>

이러한 작업은 이미 여러 학자들이 시도한 바 있는데, 그 중 아놀드는 MacIntyre의 덕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스포츠를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인간의 실천으로 해석하고자 했다. 그는 스포츠에 대한 해석은 사회학적인 접근으로 기술적(descriptive) 방법인데, 이 방법으로는 한계

15) 맥킨타이어의 덕 이론을 스포츠에 적용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지속되어 왔다. 스포츠를 적용할 수 있는 실천의 영역으로 가정하고 김홍식, 오현택, Arnold, McFee, McNameee, 등이 맥킨타이어의 이론을 통해 이론적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최근 강성민 박사는 “실천으로서의 스포츠의 내재적 선에 대한 탐구”라는 학위 논문을 통해 그동안의 맥킨타이어와 스포츠에 관한 선 연구를 자세하게 정리한 바 있다. 강성민 “실천으로서의 스포츠의 내재적 선에 대한 탐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pp. 40~41

가 있기 때문에 규범적(prescriptive/normative) 방식이 적용될 것을 주장한다. 아놀드가 이 지점에서 주목한 개념이 맥킨타이어의 ‘실천’이다.<sup>16)</sup> 즉, 스포츠를 실천 맥락으로 편입 시킬 가능성을 찾고자 한 것이다. 맥킨타이어에 따르면 실천은 그 자체로 ‘내재적 선’을 내포하고 있고, 그 선이란 덕을 전제로 했을 때 가능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인간들의 삶을 실현하는 실천 속에서 덕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이다. 아놀드가 주목한 것은 이러한 방식으로 조명되는 스포츠의 본질인 것이다. 실천은 전통으로부터 역사성을 부여받아 사회적으로 성립된 가치 있는 활동이며, 스포츠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결과적으로 그는 스포츠를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인간의 실천(a culturally valued human practice)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 지점에서 스포츠가 ‘실천’의 한 양태로 제시됨을 통해, 하나의 덕의 양상으로서의 스포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먼저 맥킨타이어의 실천, 그리고 그에 관계된 내재적 선에 대해 논하고 다음으로 스포츠가 과연 실천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논의할 것이다.

### III. 맥킨타이어 덕 윤리로 바라본 스포츠

#### 1. 덕의 일차적 요소인 ‘실천’

나는 실천이라는 개념을 사회적으로 형성된 협동적인 인간 활동(activity)의 모든 일관되고 복합적인 형식에 적용하려고 한다. 활동의 형식은 그것들만이 갖는 내재적인 가치(선)를 갖고 있는데, 그 선들은 활동 형식에 적합하고

16) 아놀드는 “기술적 방법은 흔히 각 개별 스포츠가 드러내고 있는 현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 스포츠를 규정하는 방식인데 이는 스포츠를 규범적으로 규정하는데 있어 한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스포츠의 본질을 간과하기 쉽고 단지 스포츠의 속성을 연구하는데 그친다”고 지적하면서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한다. 강성민, op.cit., 제인용. p. 41



또 부분적으로 활동 형식에 의해 정의할 수 있는 탁월함의 기준을 가질 때 실현된다. 그리고 이 가치(선)의 실현은 탁월성을 성취할 수 있는 인간의 힘과 관련된 목적과 선들에 관한 인간의 관념이 체계적으로 확장되는 결과를 수반한다.<sup>17)</sup>

맥킨타이어는 덕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는 과정 중, 덕의 본질에서 첫 번째로 '실천'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다. 인용문에 따르면 실천은 세 가지 정도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는 실천은 복합적이고 정합적인 활동 형식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단순한 행동양식과는 구분된다. 실천은 다양한 행동양식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그것들을 특정한 선으로 지향하게 함으로써 정합적인 성격을 갖는다.<sup>18)</sup> 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실천의 두 번째 설명에서 드러난다.

다음은 실천이 전제하는 선이 그것과 내재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선을 실천에 내재하는 선과 외재하는 선으로 구분한다.<sup>19)</sup> 그에 따르면 내재적 선들은 실천의 활동에 참여할 때에 생겨나는 것이고, 외재적 선들은 특정한 실천에 참여하면서 드러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항상 특정한 실천과 결합되어 있지는 않다.<sup>20)</sup> 그는 덕이 바로 이런 실천

17) A. MacIntyre, *After Virtue*, op.cit., p. 187

18) 맥킨타이어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벽돌을 쌓는 것이나, 축구공을 잘 다루도록 숙련하는 것은 실천이 아니다. 왜냐하면, 벽돌을 쌓는 것이나 축구공을 잘 다루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로만 보았을 때, 어떤 목적을 전제로 하거나, 그 자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단순한 행동(behavior)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에 축구, 건축, 농사 같은 것은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 이 경우에는 그 속에서 행동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그러한 행동들이 추구하는 선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ibid.*, p. 189.

19) *ibid.*, p. 188

20) 맥킨타이어는 외재적인 선에 대해서 체스 게임을 사례로 설명한다. 체스 게임에서 경기자가 자신의 게임 활동의 목적을 단지 이긴 사람이 받게 되는 상품에 두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한 종류의 고도의 분석적 기술, 전략적 상상력 같은 고유의 탁월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전자의 경우가 외재적인 선이라는 지적이다. 왜냐하면,

에 내재하는 선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간의 자질이라고 한다.<sup>21)</sup> 이렇게 볼 때 덕의 활용과 획득은 고유한 내재적 선을 갖는 실천에 참여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이다.

세 번째는 그 활동 속에서 활동이 정해 놓은 탁월함의 기준을 넘어서야 한다는 점이다.<sup>22)</sup> 그런데 맥킨타이어는 여기서 두 가지의 요소를 더해서 ‘실천’에 대한 정의를 완성한다. 바로 실천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해진 규칙이 있어야 하며, 그 실천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전통적으로 지속, 발전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 맥킨타이어는 ‘실천’에 대한 이러한 설명을 토대로 ‘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잠정적인 정의를 내린다.

덕은 하나의 인간이 체득한 하나의 성품으로, 그 성품을 갖고 실천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실천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을 성취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 성품이 부족한 경우는 결과적으로 그 선들을 성취하지 못하게 된다.<sup>23)</sup>

즉 맥킨타이어가 말하는 덕이란 실천에 내재하는 선을 성취하는 인간의 하나의 품성, 혹은 성질인 것이다. 그런데 어떤 단순한 행위가 실천이 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말이다.

---

그것은 다른 활동을 통해서도 획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자는 다른 활동으로 획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체스 게임에 고유하게 존재하는 선이다. 이러한 내재적 선이 부족한 어떤 활동도 하나의 실천으로써 간주될 수 없다는 것이 맥킨타이어의 지적이다. *ibid.*

21) *ibid.*, pp. 188-189

22) 맥킨타이어는 탁월성에 대해 ‘체스’와 ‘가르침’을 예로 든다. 그는 ‘체스’의 경우는 탁월성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지만 ‘가르침’의 경우에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어떤 것을 실천이라고 말하려면, 그 자체의 ‘탁월성’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ibid.*, p. 190

23) *ibid.*, p. 191.

## 2. 덕의 요소인 '실천'으로서의 스포츠<sup>24)</sup>

이러한 맥킨타이어의 논점에 따라 스포츠가 과연 덕의 일차적 요소인 '실천'에 얼마만큼 부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스포츠가 인간들의 활동들 중에서, 특수한 목적을 지닌 활동으로 구별됨을 드러내면서, 그 정체성 확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앞서 말한 대로 실천이란 사회적으로 가치 부여된 일관되고 복잡한 인간 활동의 양식으로, 탁월성에 이르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와 능력의 발현에 의해 내재적 선의 성취를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그 내재적 선이란 실천을 통해서 이해되고 성취되는 실천의 고유한 선으로, 실천의 목적이며 탁월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맥킨타이어는 자신의 실천 개념에 농업, 건축, 음악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스포츠'는 과연 이 '실천' 개념에 부합할 수 있을까? 만약 이 가정이 옳다면 스포츠의 내재적 선은 스포츠의 목적을 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이 작업은 자동적으로 어떠한 활동이 스포츠의 목적과 부합하는지를 제시하여 스포츠의 내재적 선이 실천의 규범적 준거로서 역할을 할 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아놀드는 바로

24) 덕과 스포츠의 관계에 대한 연구 중, 강성민 박사는 “스포츠를 내재적 선을 담지하고 있는 ‘실천의 한 양태’로 제시하면서 ‘내재적 선’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했다. 그는 내재적 선이란 스포츠의 근본 목적을 제시하여 여타의 활동과 스포츠를 구별하며, 스포츠를 스포츠이게끔 만드는 본질적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스포츠의 내재적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낸다면 실천의 개념 속에서 스포츠를 규범적으로 규정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스포츠의 성격 또한 자연스럽게 제시될 수 있고, 스포츠 논쟁과 관련하여 논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고 본다. 그는 현재 우리 스포츠 현상에 나타난 과도한 상업주의, 운동선수의 기계화, 승부조작 등 제반 문제들의 근본적 원인이 과도한 상업주의화, 운동선수의 기계화와 자본화, 승부조작 등 스포츠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반 문제들의 근본적 원인은 스포츠가 담지하고 있는 목적과 근원을 올바르게 찾지 못하고 스포츠의 외재적 선에 대한 과도한 관심에 기인한다고 본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스포츠의 근본 목적인 스포츠의 내재적 선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op.cit., p. 5

이 지점을 자신의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즉 스포츠는 스포츠만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가치가 있으며, 오랫동안 지속 발전되어 왔다. 물론 개인의 활동이면서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 협동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탁월함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스포츠는 그 자체의 내재적 가치와 탁월성을 갖고 있는 하나의 문화적 실천으로 이해해야 된다. 여기서 내재적 가치와 탁월성은 그 실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특정한 형식의 덕을 갖고 사용하면서 유지, 지속된다. 실제로 실천은 하나의 전문 직업처럼 그 실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기술을 연마하고 수용하고 목적을 실행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또한 실천의 내재적 가치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로 내재적 가치는 특정한 활동의 관점에서 설명되고 이해될 수 있다. 둘째로 실천의 내재적 가치들은 해당 활동 안에서 그 활동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완벽하게 파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쿼시에서 리버스 앵글 샷은 스쿼시라는 활동의 관점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 그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해 온 사람일 때에만 그 샷을 언제 어떻게 누가 구사해야 하는지 완벽하게 알 수 있다.<sup>25)</sup>

아놀드의 이런 지적에 따르면 스포츠는 그 자체에 내재적 가치와 탁월성의 기준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오랜 시간 누적되어 발전되어 온 결과이다. 여기서 아놀드는 이런 실천 개념을 토대로 스포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활동의 내재적 가치와 기준들이 그 활동 자체를 위해서 도덕적 방식으로 추구되는 경쟁적이고 규칙을 지켜야 하는 신체의 노력이 요구되는 활동<sup>26)</sup>

25) Arnold, P. J. *Sport, ethics and education*. London: Cassell, 1997, p. 16

26) *ibid*

아놀드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주목한 개념은 '내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실천'과 '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제도'에 대한 부분이다. 맥킨타이어는 실천을 제도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예를 들어 테니스 게임을 테니스 연맹으로, 또는 체스, 과학, 학문, 예술을 체스 클럽, 실험실, 대학, 병원이라는 제도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sup>27)</sup> 실천은 그 자체의 내재적 가치들, 성취와 실행의 기준에 대한 보존과 관련되어 있다. 반면에 제도들은 실천이 관계하고 있는 것들과 동일한 관심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권력, 지위, 명성, 돈 같은 외재적인 가치들에 더 깊이 관여하고 있다. 스포츠라는 하나의 실천이 제도화 될 때, 결국 그 조직과 기구는 외재적 가치에 함몰되어 관료화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천이 사라지고 제도가 부각된 스포츠는 스폰서, 광고주 입장료 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선수의 인기에 따라 탁월성이라는 요소를 배제하기도 한다. 즉 자신의 정체성인 스포츠를 버리고 외재적 가치가 그 자체로 여겨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들이 아무리 외재적인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제도가 없다면 실천은 과연 어느 정도 지속, 발전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시할 수 있다. 맥킨타이어는 이런 문제에 대해 덕의 본질적인 기능이 보다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정의와 용기, 진실성과 같은 덕목들을 통해 실천을 압박하는 제도들의 힘에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sup>28)</sup> 스포츠는 그 자체 내재적인 가치인 덕들이 존재한다. 즉 스포츠는 그 덕목을 실천함을 통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이어 맥킨타이어는 덕이 이러한 '실천'의 틀에서 실행되는 것을 넘어

27) A. MacIntyre, *After Virtue*, op.cit., p. 194

28) *ibid.*, 194

좀 더 확장되고 보완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천’이 덕의 출발점이 되었지만, 문제는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다른 가치(선)들이 충돌할 때, 실천들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들이 중립적인 보편성을 갖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실천의 내재적 가치들이 갈등을 겪을 때,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통일성을 제공하는 또 하나의 장치가 필요하다. 맥킨타이어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하나의 통일된 내러티브로 구성된 인간의 삶’과 ‘전통’을 제안한다.

### 3. ‘실천’ 내재적 가치를 보완하는 내러티브와 전통

인간들의 삶 속에 들어있는 내러티브들은 줄곧 개개인의 삶에 통일성을 부여한다. 즉 사람들은 하나의 이야기들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살아가간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의 탄생과 성숙, 죽음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되며, 그 이야기는 그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하나의 통일성 속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부딪치는 상이한 선들 속에서 갈등하기도 한다. 그들은 이러한 삶의 단절성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까?<sup>29)</sup>

맥킨타이어는 이 문제를 위해 ‘하나의 통일된 내러티브로 구성된 인간의 삶’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성실’하다는 덕목의 경우, 한 인간의 전체적인 삶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즉 실천에 내재적인 가치를 충실하게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덕’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가치들의 충돌로 인한 갈등을 겪으면서 점차 하나의 일관되며 통일된 이야기를 만들었을 때, 그것을 ‘덕’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달리 말하면, 덕이란 “우리 삶 전체를 통해 갈등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하나의 성향”이 되는 것이다.

29) *ibid.*, pp. 218-219

하지만 맥킨타이어는 여기에 또 하나의 개념을 제시한다. 왜냐하면 인간 삶의 내러티브적인 형식은 그 자체로 본다면 개인적인 삶의 경우에 국한되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그는 덕이 이러한 형식을 뛰어 넘어 공동체의 역사와 시스템 속에서 하나의 통일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을 마련한다. 바로 ‘전통’<sup>30)</sup>이라는 개념이다.

맥킨타이어는 개인의 삶의 역사는 공동체와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본다.<sup>31)</sup> 누구의 자녀이고, 어느 나라와 어느 지역에 속해있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개인의 정체성을 규명해 주는 동시에 역사적 산물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의 아들로써 살아간다는 것은 아버지, 할아버지 등 과거의 끝없는 연속 안에 그 의미 부여가 되는 것이다. 즉 인간은 역사적 정체성 없이는 어떤 사회적 정체성도 가질 수 없게 된다. 맥킨타이어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규정되는 개인을 전통의 담지자라고 부른다.<sup>32)</sup> 그래서 개인이 공동체 속에 편입된다는 것은 바로 전통 속에 편입된다는 말인 것이다. 이러한 전통은 그 속에서 갈등을 전혀 배제하지 않으며, 또한 그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성과 탐구의 통일성에 대한 요구를 동시에 포함한다.

모든 전통들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은 전통이 합리적으로 발전해 하고 채택되는 과정에 대한 탐구를 가능하게 하는 충분한 합리적 자원들을 결여하게 된다. 그는 전통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기

30) 맥킨타이어는 전통에 대한 옹호를 보수주의자와 자신이 주장하는 ‘전통’의 차이를 설명한다. 그는 전통이란 역사적으로 확장되고 사회적으로 구현된 논증임을 주장한다. 버크는 전통과 이성, 전통과 갈등을 대치시켰지만, 맥킨타이어는 전통의 담지자로서의 삶은 지속적인 갈등과 논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한 논쟁을 통한 전통의 비판과 발전은 전통의 사유 방식의 맥락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하고, 이러한 입장에서 자신의 개념이 결코 보수주의자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ibid.*, pp. 221-222

31) *ibid.*, p. 221

32) *ibid.*, p. 221

때문에 어떤 전통도 다른 전통에 대해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결론을 추론할 수 없다. 모든 전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그러한 탐구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지적, 도덕적 빈곤 상태를 초래한다.<sup>33)</sup>

이 정의에 따르면 전통은 자신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합리성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 즉 실천적이고 도덕적인 합리성을 갖기 위해서는 전통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전통 속에 존재할 때만이 전통이 갖는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평가의 자원들을 갖기 때문이다.

이처럼 맥킨타이어는 실천의 내재적인 가치, 인간 삶의 통일된 내러티브(성품의 통일성), 그리고 살아있는 전통의 유지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역사 속에서 덕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한 개념적 장치들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드러난 덕은 특수한 사회적 맥락과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규명되는 특수한 차원을 가지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맥락을 벗어나서 보편성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차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진다. 맥킨타이어는 이러한 덕의 목록들을 세세하게 설명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들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다음과 같은 덕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정의를 내리게 된다.

덕의 의미와 목적은 실천에 내재된 다양한 선이 성취되는 데 필요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다. 또한 전체적인 삶의 선으로서 자신의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의 형태를 유지하는 데 있다. 마지막으로 실천과 개인의 삶에 필요한 역사적 맥락을 제공하고 전통을 유지하는 데 있다.<sup>34)</sup>

---

33) A. MacIntyre, *Whose Justice? Which Rationality?*(Indiana: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8), p. 367

34) MacIntyre, *After Virtue*, op.cit. p. 223



이제 이러한 덕에 대한 정의는, 스포츠계가 직면하고 있는 윤리적 문제들이 갈등을 일으킬 때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통일성을 갖는 인간들의 내러티브'는 단순히 스포츠가 내재된 가치 실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을 통전성(totality)을 가진 총체적 존재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갖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스포츠는 그 자체로 인간의 삶 전체에 선을 제공할 수 있는 내재적 가치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맥킨타이어가 마지막에 제안한 '전통'이라는 개념은 그동안 스포츠가 고민하고 있던 영역의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게 한다. 시대가 변하면서 차츰 레저 혹은 레크리에이션의 영역에 있던 활동들이 스포츠로 편입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sup>35)</sup> 이를 상황 속에서 사회적 전통을 구현하는 측면으로 스포츠를 바라본다면, 갈등의 요소들이 줄어들고 스포츠의 영역을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IV. 맺는 말: '좋은 삶'의 원형 회복을 위한 스포츠

한국 사회에서 스포츠는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 2002년 한국-일본축구월드컵, 2011년 대구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등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왔다. 하지만 그 성장의 이면에 과도한 상업주의화, 운동선수의 기계화와 자본화, 승부조작 등의 문제들을 떠안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스포츠의 외재적 가치에 빠져서 스포츠의 내재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 결과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해서 스포츠의 근본 목적인 스포츠의 내재적 가치를 회복시키는

35) 임현덕은 이 문제를 스포츠의 정체성 회복과 영역의 해결 방안으로 보면서, 구체적인 사례 비독을 스포츠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다. op.cit. pp. 108~110

작업을 통해 스포츠와 스포츠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목적과 스포츠 관련 제도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현대 윤리학자 맥킨타이어는 이러한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들의 통약 불가능한(incommensurability) 도덕 판단들의 갈등 상황 앞에 ‘덕 윤리’(Virtue Ethics)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스포츠 학계에서는 이놀드 등 몇몇 학자들이 맥킨타이어의 덕론에 근거해서 새로운 스포츠 윤리를 제안하고 있다. 덕 윤리는 결과지향적인 ‘행위 중심’이 아닌 ‘행위자 중심’의 윤리로의 이행을 통해 현대 사회의 도덕적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맥킨타이어의 덕 윤리 전체 논의를 스포츠와 연계하기는 쉽지 않았다. 따라서 그가 제시한 덕의 본질인 ‘실천’ ‘삶의 통일성’ ‘전통’과 스포츠 담론을 연계해 보았다. 즉 맥킨타이어 덕 윤리가 왜 스포츠에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시작으로 ‘덕’의 특성을 ‘스포츠’에 적용하고, 이를 통해 스포츠 본질 회복의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한 것이다.

맥킨타이어의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스포츠를 덕의 시선으로 재해석하면 “스포츠는 오랜 역사 속에서 가치있는 인간의 사회적 활동 양식이며 공동체의 합의를 거치며 협동적인 실천의 양태”로 정의 내릴 수 있다. 앞서 소개한 이놀드는 맥킨타이어의 덕 윤리가 스포츠 윤리의 근간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특히 스포츠 종사자들 중 코치와 선수들에게 왜 스포츠를 배우고 실천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놀드는 스포츠는 단순히 사회의 축소판일 뿐 아니라 ‘좋은 삶의 사례 중 하나이며, 그 속에서 사람들은 스포츠만의 특정한 선들과 ‘탁월성’이라는 덕을 추구한다고 주장한다.<sup>36)</sup> 그는 스포츠에는 공통된 윤리적 원칙들과 스포츠만의 고유한 덕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포츠맨십(sportspersonship)’이라고 본다. 이것은 소위 ‘공정 fair’에 대한 인정과

36) Arnold., op.cit., p. xiv

더불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관심, 동료 의식, 관용 및 아량 등의 덕들이 포함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러한 스포츠의 성격 때문에 스포츠 교육 자체를 인성 교육 혹은 도덕을 교육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sup>37)</sup>

아놀드 외에 국내외 많은 학자들이 스포츠와 윤리 담론들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고 학문적으로 스포츠 윤리를 정립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스포츠 현장과의 연계성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특히 학계 뿐 아니라 스포츠 종사자들도 스포츠가 가져야 할 스포츠맨으로서의 덕목조차 분명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황이다. 사실 스포츠계에서 윤리 교육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스포츠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5년부터는 체육지도자들이 스포츠윤리를 기본 소양으로 배우고 취득할 수 있도록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시험에 ‘스포츠 윤리’ 과목이 신설된다. 2급 전문 스포츠 지도사와 2급 생활스포츠 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윤리 관련 자질을 함양하여 자격검정시험에 통과해야만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2014년 통과 되면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식을 통감하지만 결과적으로 스포츠 윤리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보인다. 즉 스포츠 윤리에 대한 정의와 방향성,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분명한 논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포츠 지도자가 현장에서 스포츠윤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지의 여부는 지도자 개인의 신념과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스포츠 윤리에 대한 관심으로 도핑, 스포츠맨십, 성차별, 승부조작, 페어플레이 등 특정 주제에 관한 학문적 연구는 최근 몇 년 동안 활발하게 이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연구에 비해, 스포츠 윤리가

37) *ibid.*, pp. 72-73

무엇인지, 즉 스포츠 윤리의 궁극적 목적과 대상은 무엇이고, 이 대상을 어떤 방법으로 연구할 것인지, 스포츠 윤리를 하나의 학문으로 성립시키는 방법론적 근거들은 있는지 등과 같은 스포츠윤리 자체에 관한 철학적 고찰은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덕에 대한 맥킨타이어의 논의를 스포츠에 대한 정체성 확립 및 스포츠맨이 가져야 할 구체적인 덕목들을 제시할 수 있는 틀로 삼게 된다면, 덕 윤리는 스포츠 현장에서 하나의 윤리적 준거 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놀드의 지적처럼 덕 윤리를 스포츠의 본질인 '좋은 삶'의 원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중요한 단초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덕에 기반을 둔 스포츠 교육의 방향성 또한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성민. “실천으로서의 스포츠의 내재적 선에 대한 탐구”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2013.
- 곽낙현 외. 『스포츠 인문학』 체육사상연구회 편. 서울: 레인보우북스, 2008.
- 김태길. 『윤리학』 서울: 박영사, 1980(증보판).
- 김태길 외. 『현대사회와 철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1.
- 김홍식. “체육의 내재적 가치에 관한 선험적 정당화론 비판.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0.
- 맥킨타이어 A., 『덕의 상실』 이진우 역, 서울: 서광사, 1995.
- 오현택. “맥킨타이어의 덕론이 스포츠에 주는 함의”.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6.
- \_\_\_\_\_. 『맥킨타이어 덕론의 체육 철학적 탐구』 과주: 2008. 한국학술정보.
- 이지성. 『덕 윤리 내에서의 내러티브 연구』 숭실대학교 철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3.
- 황경식 외. 『현대 사회와 윤리』 서울: 서광사, 1991.
- Anscomb, G. E. M., “modern moral philosophy” *Philosophy* 33, 1970.
- Arnold, P. J. *Sport, ethics and education*. London: Cassell, 1997.
- MacIntyre, A., *After Virtue*, Indiana: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1.
- \_\_\_\_\_. *Whose Justice? Which Rationality?* Indiana: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8.
- \_\_\_\_\_. *A Short History of Ethic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84.
- McFee, G. The intrinsic value of sport: A reply to Culbertson. *Sport, Ethics and Philosophy*, 3(1), 19-29. 2009.
- McNamee, M. Sporting practices, institutions and virtues: A critique and a restatement. *Journal of the Philosophy of Sport*, 22(1), 61-82. 1995
- \_\_\_\_\_. *Sports, virtues and vices*. London: Routledge. 2008

214 『기독교사회윤리』 제31집

논문투고일: 2015. 02. 28.

심사개시일: 2015. 03. 13.

게재확정일: 2014. 04. 11.

---

• 국 문 초 록 •

---

본 논문은 학문간의 통합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 맞춰, 스포츠를 윤리학적으로 시선으로 바라보는 하나의 시도이다. 그동안 스포츠에서의 윤리 문제는 편파 판정, 약물 복용, 구타, 성 차별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일관적으로 ‘옳음’과 ‘그름’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스포츠의 본질을 잃고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 사회에서 상반된 도덕적 판단들은 저마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도덕적 논쟁에 그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스포츠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현대 윤리학자 맥킨타이어(A. MacIntyre)는 이러한 통약불가능한(incommensurability) 도덕 판단들이 직면한 상황 앞에 ‘덕 윤리’(Virtue Ethics)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스포츠 학계에서도 아놀드(P. Arnold) 등 몇몇 학자들이 맥킨타이어의 덕론에 근거해서 새로운 스포츠 윤리를 제시하고 있다. 덕 윤리는 결과지향적인 ‘행위 중심’이 아닌 ‘행위자 중심’의 윤리로의 이행을 통해 현대 사회의 도덕적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본 논문은 맥킨타이어 덕 윤리가 왜 스포츠에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시작으로 ‘덕’의 특성을 ‘스포츠’에 적용하고, 이를 통해 스포츠 본질 회복의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했다. 특히 맥킨타이어가 덕을 정의 하면서 제시한 ‘실천’ 개념을 통해 ‘스포츠’를 재해석하면서, 현재 스포츠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해결의 단초를 제시하고자 했다. 본 논문은 전반적인 구성상 기존의 응용 윤리학으로서의 스포츠 윤리학에 대한 소개 및 해석은 제외하고, 덕 윤리에 대한 소개와 덕 개념을 통해 재구성된 스포츠를 규명하는 데 집중했다. 본 논문은 ‘스포츠’와 ‘덕 윤리’의 만남이 현대 사회에서 스포츠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이 극복되고 스포츠의 본질인 ‘좋은 삶’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라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주제어:** 스포츠, 덕, A. 맥킨타이어, 덕 윤리, 실천, 행위자 중심 윤리, 스포츠 교육

---